

비타민C, 말기 암환자에게 효과적

관동대 의대 염창환 교수팀, 삶의 질 향상효과 ... 하루 4g 복용

말기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비타민C가 효과적이라는 임상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송근정 교수와 관동대의대 가정의학과 염창환 교수팀은 39명의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고용량의 비타민C를 복용시킨 뒤 환자의 삶의 질을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월20일 발표했다.

연구결과는 대한의학회에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인 대한의과학회지 2월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말기 암환자들에게 비타민C 10g을 1주일에 2차례씩 주사하면서 별도로 매일 4g의 비타민C를 복용하도록 한 뒤 삶의 질을 평가했다.

평가결과 비타민C를 섭취한 환자들의 전반적 건강상태와 기능적 상태인 신체적 역할, 감정적·인지적 능력, 증상적 상태(피로·오심/구토·통증·식욕부진 등)에서 통계학적으로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한 일반인의 비타민C 하루 섭취 기준치는 100mg(=0.1g)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통 하루 0.5-4g의 비타민C 섭취는 무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알약이나 캡슐, 드링크 등의 비타민C 보충제에는 통상 0.5-1g 정도의 비타민C가 함유돼 있다.

염창환 교수는 “암 환자에 대한 비타민C 효과가 아직까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말기 암환자의 삶의 질은 중요한 문제”라면서 “연구결과를 보면 비타민C가 말기 암 환자들에게서 삶의 질을 올리는 효과가 있는 만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2/21>